



한인회보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 O. Box 4093 Seattle, Wash. 98104
Sung Kil Kim Publisher
Editor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VOL. 3 NO. 1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Feb. 1976

3·1절 기념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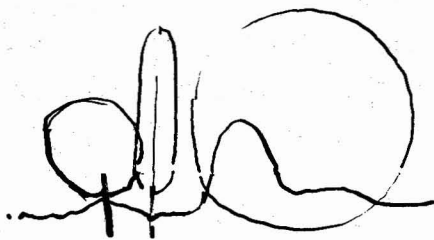
학생회와 공동으로 주최

3·1절 기념일을 맞이하여 한인회에서는 학생회와 공동으로 기념식과 음악회를 갖기로 하였다.

이날 기념식을 바친 후에는 와싱턴 대학교 음악대학 재학생인 한국학생들의 음악 발표회로서 이날을 뜻깊게 기념코려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1976년 3월 1일(월요일)
오후 7시 30분 부터

장소: 와싱턴 대학교 음악 대학 강당(Music Hall)



<아리랑의 밤 심료>

연례로 크리스마스과 연말을 기하여 와싱턴주 교민이 한 자리에 모여 하룻밤을 즐겁게 지내는 "아리랑의 밤"은 지난 12월 27일(토) 시내 중심가의 윌립스 호텔에서 저녁 7시 30분 부터 새벽 1시까지 50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으로 구성된 북경 밴드와 10인조 미연 힐튼 밴드의 경쾌한 음악으로 흥겹게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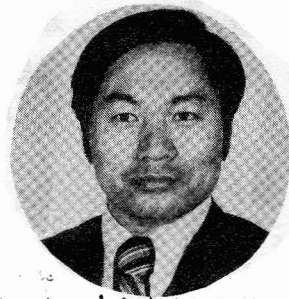
"아리랑의 밤"은 1967년 이후부터 이제까지 한인회 정기 행사중 가장 큰 행사로 손꼽혀 오고 있다

이날 참석한 회원중 차기 "아리랑의 밤"은 ① Tacoma 와 Seattle 중간 지점인 Sea-Tac Airport 근처로 정하여 주기를 희망하시는 분과 ② 한국인 밴드로만 해야 하겠다는 요청을 참고하여 더욱 여러분의 감미에 맞추도록 방법을 연구 하겠다고 한다.

수입 \$ 1,853.00, 지출비 \$ 1,575.00, 잔액 \$ 338.00

퇴임사

신호범 구회장



교포 여러분께:

과거 일년간 여러분의 충고와 사랑하여 주시는 덕분에 무능한 제가 한인회의 중책을 맡아 일년간 봉사할수 있었던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한인회와 또한 한인사회를 위하여서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뜻있는 일년간을 일할수 있었으며 또한 한인사회가 좀 더 발전될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같이 여러분이 여러가지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1975년도 임원들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1975년도의 임원들인 황수철씨, 조영씨(부회장), 장진섭씨(총무), Mrs. Smith씨(재무), 조묘한씨(조직), 오윤복씨(섭외), 주상걸씨(체육), 오계희씨(교육), 김창성씨(봉사), Mrs. Moore(편집), 곽종세씨(편집), 김종우씨(재무) 들께 이 기회를 통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려 하오며 전 임원들께서 지난 일년동안 시간으로 정신으로 또 물질로 너무나 희생을 많이 하신것과 성의를 다하여 한인회를 위해 수고하신것을 여기에 일일이 열거하여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교포 여러분께서, 또 임원들께서 언제나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도와 주셨기에 한인회는 많은 행사와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모든 행사는 천년 체육 경기부터, 한국의 밤, 경포잔치, 또한 아리랑의 밤 까지 분주하신 여러분께서 도와도 주시고, 선전도 하여 주시고, 힘과 노력을 같이 나누어 주셨기에 모든 행사가 무사히 진행될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첫째, 저는 작년 일년간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가지를 배울수 있었으며 둘째, 이 기회를 통하여 한국 문화와 역사를 더 배울수

(PAGE 2에 계속)

<새 일꾼>

한인회 임원은 조건없이 무보수로써 교민을 위하여 직장의 시간을 쪼개어 이제까지 봉사해 왔습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을 우리는 언제나 환영하며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1976년에 여러분을 대신하여 수고해 주실 이사와 임원을 소개하오니 많은 충고와 격려로서 본회 육성을 위해 도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사

1년 임기 - 이 현기(이사장), 남희노스(부회장), 김형진(총무)

2년 임기 - 이 완구, 신호범

회장 - 김성길

부회장 - 안병용, Mrs. Smith 해식

총무 - 신부식, 재무 - 최명철

회관건립 - 남성삼, 교육 - 김정부

부녀 - Mrs. Hughes, 체육 - 조창열

봉사 - 장현주 편집 -

<상항 총영사 교체>

3년 7개월간 상항 총영사직을 역임하여 온 바있는 윤찬 총영사는 지난 1월 5일자로 외무부 외교 연구원 연구관으로 외무부 발령을 받고, 그 후임에 신동원 국제 경제국장인 오게 되었다. 신임 신동원 상항 총영사는 경기고, 서울대출신, 본부 총무과장, 주미대사관 참사관을 역임한 바 있다 한다.

<학생회에서 망년회>

박건홍 신임 워싱턴주 학생회 회장은 지난 12월 30일 제일교회에서 약 150여명의 학생들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망년회를 개최하여, 풍부한 음식과 전자물건과 섹스폰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잠시나마 책을 떠나 흥겨운 시간을 가진바 있다.

현재 와싱턴주에는 한국 유학생이 근 1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요즘은 교포 자녀들이 많이 입학되고 있다 한다.

근 하 신 년

한인회 임원일동

(신호범 구회장 퇴임사)

있어서 더 자신있는 한인회의 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 자신의 개인적인 진보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이 와실론주에는 참으로 훌륭한 교포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오래 사신 분이냐 새로 이민오신 분 모두가 다 훌륭한 분들이신 것을 알고 있으며 저는 이같은 여러분 사회의 일원이 된 것을 기쁘고 긍지로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제님들과 우리들의 젊은이들을 볼때 미래의 큰 우리 한인교포사회로 발전하게 되리라 믿으며, 이를 생각할때 자제들에게 부과된 중책이 적지 않음을 느끼지 않을수 없으며, 더욱 많은 희생과 봉사가 필요하리라고 느껴 집니다.

과거 일년간 제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부족했던 점 또한 잘못되었던 점은 널리 이 기회를 통하여 용서를 바랍니다. 성의는 컸으나 능력이 부족하였습니다. 혹, 제가 부족했던 탓으로 말로나, 태도로, 혹은 느낌으로라도 여러분에게 거슬린 점이 있었다면 그것이 결코 저의 본의가 아니었던 것을 이해하여 용서하시며, 앞으로 전과 다름없이 친구로, 제자로, 또한 교포의 한 사람으로서 지도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우리 이세 교포들이 어린 자제들의 장래를 위하여 과거 여러분들이 보여 주신 그 성의와 후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더욱 배가하시어 한인회와 한인사회를 보호 육성하시는데 아낌이 없으시기를 당부하고 싶사오며, 이번에 구성된 새 임원들에게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간단한 퇴임사를 대신 하고저 합니다.

오는 해도 교포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안정이 깃들이기를 축원하오며 대단히 감사합니다.

<취업 관계자 증가>

한국, 일본, 중국, 비올비, 사모아계의 구직 안내 업무를 주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맡아 보고 있는 E.O.C. (Employment Opportunities Center - 4726 Rainier Ave. S. 725-8200)에서 김흥기, 권영길 두분이 한인의 구직을 위하여 수고해 오셨던 바 그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지난 12월 15일부터 새로이 Mrs. Reeve 씨가 동용하게 되어 세 분이 한국 교민의 구직분제를 돕게 되었다.

◎ 임원회

'76년 임원진은 그회에 걸쳐 임원회를 개최하고 '76년도 한인회 각부 사업계획을 마련한바 있다.

◎ 한인회에 보조비

상항 총영사관에서는 1976년도 교민활동 보조금으로 \$100.00을 한인회에 보내 왔다.

◎ 용접사 협회 (Welders Asso.) 총회

지난 12월 22일 당 병역씨 댁에서 개최된 '75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회장 심상현씨의 경과보고, 재무보고, 수정이 있은후 '76년도 임원선거에서

회장 - 정철식

부회장 - 이종익, 김영진

총무 - 서영호, 재무 - 오수남

감사 - 주상걸 씨를 각기 선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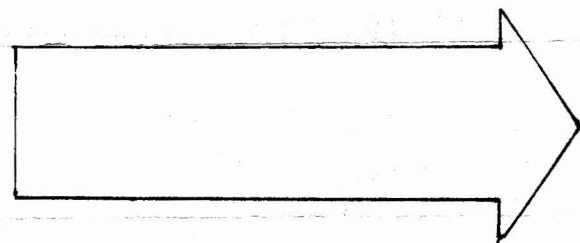
타코마 소식

- 타코마 부인회는 지난 1월 9일 부인회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입회장 (홍자. 화이트씨), 부회장 (리아 암스트롱씨), 총무 (숙자. 잼 로우스키씨) 등을 선출했으며 이사진을 12명으로 증원했다.
- 타코마의 "페킹" 식당에서는 지난 1월 중순부터 현인시를 초대하여 한국밴드와 함께 약 1개월 예정으로 공연중.
- 타코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황봉길 여사가 뇌암 수술후 생활고에 간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딱한 소식을 타코마 부인회에서 임원회에 보고함으로 임원들이 즉석에서 주머니를 털어 거출된 \$60.00불 (이 창회식 \$20.00 포함)을 타코마 부인회를 통하여 전하였다.

철주교 교인들이 매월 첫 주일 12시와 미사 (MASS) 집전을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김덕환 박사 (전화 641-0667)께 연락 바랍니다.

집 세 놓습니다.

4 Bed Rm House 월 \$190.00
University District - 대학가잡고 다운타운에 편리한 Bus. 연락 523-7077 (5시 이후)



회비납부 요망

'76년도 회비 납부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나지는 귀중한 안 참여가 한인회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부 5불, 독신자 3불 이상
보낼곳: P.O. BOX 4093
SEATTLE, WA 98104

안병용 부동산보험
Prudential REALTOR® MLS

시애틀 838-2010
타코마 927-2277

PHILIP BYUNG-YONG AHN 안병용
부동산 집·아파트·땅·매매·관리·전세
보험 차·건강·교육·저축성 생명·IRA

*상실과 봉사로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 드립니다.

필신 (PAULL SHIN) 부동산
firstline properties inc.
Member of North End Brokers Assn.

알맞는 주택알선
노리 및 부동산 안내
아파트 건물 구입 소개
기타 상업안내

*부동산을 매매 하실 때는 신용과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 필신에게 문의 바랍니다.

신호범 PAULL HO BOM SHIN
Sales Representative

PHONE
Bus. 365-6363
Res. 778-1972

11514 - 15th Avenue N.E.
Seattle Washington 98125

교회 소식



- ◎ 시애틀 한인 장로교회 (담임 김 동협 목사)
현재 미국에서 순회 집회중인 한 경직 목사를 강사로 초빙하고 3월 4일 부터 7일 까지 4일간 대 부흥 집회를 갖는다.
교회주소 : 12412 Des Moines Way S.E.
Seattle, Wa. 98168
전화 : 783-8370
- ◎ 라코바 한인 중암교회 (담임 정남식 목사)
지난 12월 새 예배당으로 이전 (3010 S. 66th St.) 했는데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 30분.
- ◎ 라코바 제일 한인교회 (담임 김혜성 목사)
1월 17일 부터 박한진 전도사를 전임으로 맞이 하였다.
- ◎ 시애틀 복음 교회
번쿠버에서 손경환 전도사를 전임으로 맞이 하였다.



집 없으면 집을 사시고
집 있으면 집을 파세요



Pioneer Realty
5505 UNIVERSITY WAY N.E.
SEATTLE, WA 98105

김 현 중 부동산 에서
(FRANK) HYUN CHOONG KIM

- * 무료봉사: 값싼 이자를 알선 해드리고,
- * 무료상담: 정확한 감정을 해드립니다
- * 취급종류: ◦주택 ◦아파트 ◦호텔 ◦도지
◦점포 ◦기타사업 투자안내

PHONE: SEATTLE: RES. 774-7828, BUS. 774-7828, 525-7200
TACOMA: 437 0112

— 76년도 회비납부 —

- | | |
|--------------------|-----------------------|
| 1. 이충열 5.00 | 9. 안병용 10.00 |
| 2. 이창희 20.00 | 10. 신부식 10.00 |
| 3. 신호범 10.00 | 11. 최명철 10.00 |
| 4. Dan T Lee 10.00 | 12. 남영삼 10.00 |
| 5. Knowks, 남철 5.00 | 13. 김정부 10.00 |
| 6. Allred, 덕희 5.00 | 14. Mrs. Hughes 10.00 |
| 7. Smith, 혜숙 10.00 | 15. 조창열 10.00 |
| 8. 김성길 10.00 | 16. 장현주 10.00 |

* 20년 회비를 선납하신 문수만씨는 경단에서 누락되었음.

헨리 장 여행사

- 초청 이민 수속안내
- 모국 방문 특별할인 (매주)
- 항공표 월부 판매
- 이민국 문제 무료 상담

Henry Chang Travel Service

1370 Stewart Street / Suite 201, Seattle, WA. 98109

Bus: (206) 623-2975

Res: (206) 623-7057 (24 hrs.)

- ◎ 최저요금, 친절봉사
- ◎ 이민수속 무료봉사
- ◎ 국내외 항공표 판매
- ◎ 매주 특별할인단체 모국방문



대표: 김 창 성 { 624-2227
624-2228
RES. 776-7115

Lloyd Bldg. - Room 606
503 Stewart St., Seattle, Wash. 98101

여행의 상담자

김의 여행사



심령대부흥회

씨아틀 타고마 지역의 교포 여러분!!
 한국 기독교 계의 지도자이신
 한경직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이번의
 대부흥회에 모두 왕림하시어
 신앙생활에 큰 발전 있으시길 바랍니다.

일시 1976년 3월 4(목), 5(금), 6(토),
 7(일)일. 저녁 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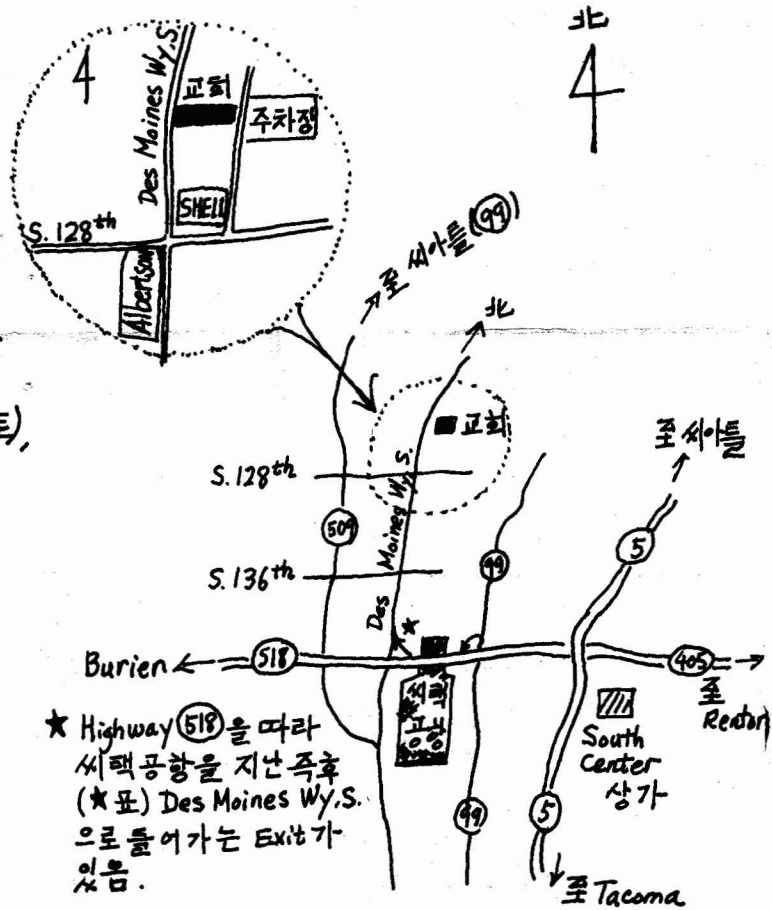
장소 12412 Des Moines Way, South,
 Seattle, WA. 98168. (약도 참조)

씨아틀 한인장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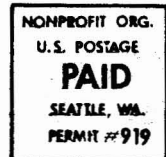
목사 김동협

장로 이창희

연락문의: 783-8370 365-3592
 246-5554 (교회)



(유료 광고)



Dr. & Mrs. Mansop Han
 12904 45th Lane
 Bellevue, Wash. 98006